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16

기타 Guitar

글. 김성현 ubc 울산방송 미디어기술국 부장

연재 목차

- 13편. 트롬본
- 14편. 호른
- 15편. 튜바
- 16편. 기타**
- 17편. 피아노
- 18편. 파이프오르간
- 19편. 유유타악기
- 20편. 무유타악기 및 에펠로그

이 글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를 매회 하나씩 소개한다. 악기 소개는 개요, 구조, 종류, 뒷 이야기 등의 열개로 기술되며 방송 현업 하시는 분에게 악기에 대한 이해와 교양으로써 상식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기타 Guitar를 들어가며

자~ 지금까지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를 훑어왔는데 현악기 중에서 꼭 다루어야 할 악기! 오케스트라의 악기는 아니지만 클래식 악기인 기타를 한번 살펴보자. 기타는 클래식 기타로 시작했지만 어쿠스틱 기타, 스틸 기타, 일렉트릭 기타 등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 클래식뿐 아니라 대중음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지존의 악기로 성장하였다. 청소년 시절 또래 여자애들한테 멋있어 보이려고 기타를 배우는 남학생들이 많은데 대부분 첫 번째 관문인 F코드를 못 잡으면서 탈락하고 두 번째 벽은 빠른 연주에서 손가락이 못 따라가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 우리에게 너무나 대중적이고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은 기타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타 잡는 멋남 / 유튜브(개콘 스틸컷)

기타의 개요

기타는 오케스트라 악기는 아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와의 협주곡도 가능하며 ‘세고비아’ 같은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들도 일반인들에게 꽤 알려져 있다. 베토벤은 기타를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했다. 피아노도 아닌 이 작은 악기 하나가 선율, 화성, 리듬까지 표현해내기 때문일 것이다. 바이올린, 플루트, 트럼펫 등을 단선율 악기라고 한다. 한 번의 운궁이나 운지로 하나의 소리가 나는 반면 기타는 동시에 여러 소리를 낼 수 있는 화음악기이다. 이처럼 일대백의 악기이지만 역사적으로 몇 번을 죽었다 살아남은 악기이다. 작은 음량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내악이나 작은 공간에서 소규모 연주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대에 와서 마이크나 픽업 기술이 개발되어서 이를 이용한 대규모 콘서트나 협연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일렉트릭 기타라는 혁신적 악기가 발명됨으로써 팝, 락, 재즈계에서는 바이올린 못지않은 고난도의 비르투오조적인 연주자가 헤아릴 수 없이 배출되었다.

기타는 현을 뜯어서 소리가 발생하는 발현악기로서 고대 리라의 일종인 ‘키타라’로부터 유래되었다.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비슷한 악기로 류트가 변성하였으며 이후 잉글리시 기타, 만돌린 등 세계적으로 비슷한 악기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클래식 기타는 19세기에 스페인의 기타 장인 ‘안토니오 데 토레스 후라도’^{Antonio de Torres Jurado}가 제작한 악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스페인은 투우와 플라멩코^{flamenco}가 유명한데 플라멩코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시작되었으며 원색의 치마를 입은 무희가 화려한 발동작과 손짓으로 플라멩코 기타^{flamenco guitar}(클래식 기타와 비슷하데 박자를 치면서 생기는 스크래치나



웨손을 막기 위한 골페판이 덧씌워짐)의 연주에 맞추어 격렬한 춤과 노래를 하는 정열의 문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플라멩코 기타로 유명한 기타리스트로는 우리나라에도 몇 번이나 내한공연을 펼쳤던 파코 데 루치아^{Paco De Lucia}가 있다. 멜로디와 화성, 리듬을 동시에 연주하는 그의 손놀림은 현란하기 그지없다.



파코 데 루치아 / theconversation.com

스페인에서 시작된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 현을 사용하는데 후에 어쿠스틱 기타(통기타)로 개량되면서 스틸 현을 사용하여 음량이 더욱 커진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영구자석에 코일을 감은 코일픽업을 장착하고 울림통이 없이 단단한 솔리드 바디(나무몸체)의 일렉트릭 기타가 개발되면서 폭발적인 인기와 대중성을 누리게 된다. 기타는 바이올린이나 첼로와는 달리 지판에 가로로 설치된 금속막대 같은 프렛이 있는 현악기이며 이것이 기타의 큰 특징이다. 기타의 현은 제일 얇으면서 밑에 있는 줄이 1번현이며 제일 두꺼우면서 위에 있는 줄이 6번현이다. 개방현 조율은 6번현에서 1번현까지 E, A, D, G, B, E 순서로 하게 된다.

클래식 기타의 연주법은 왼손으로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으로 음표 하나하나를 운지하게 되고 오른손으로는 다섯 손가락으로 현을 뜯게 된다. 왼손은 집게손가락부터 1번, 2번, 3번, 4번으로 지칭하고 오른손은 집게손가락부터 p, i, m, a, ch로 지칭한다. 오른손 주법은 대표적으로 알 아이레^{Al aire}와 아포안도^{Apoyando} 방식이 있는데 전자는 현을 튕긴 후의 손가락이 떠 있고, 후자는 튕긴 현의 다음 현에서 정지해있는데 소리를 더욱 크게 만드는 연주법이다. 특히 왼손의 핑거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판이 위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왼발에 받침대를 밟고 기타의 허리 부분을 왼쪽 허벅지에 놓은 자세로 연주하게 된다.

특히 스페인 작곡가들의 기타 곡이 유명한데, 대표적으로 타레가^{F. Tárrega}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Recuerdos de la Alhambra}은 클래식기타의 교본이라 할 정도로 낮은 곡으로 멜로디가 너무나 서정적인 곡이다. 그리고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는 3세 때 시력을 잃었음에도 장애를 극복하고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으며 아랑훼즈 기타 협주곡^{Concierto de Aranjuez}은 우리에게는 토요명화 시그널로 익숙한 곡이다.

기타의 구조

기타는 헤드, 넥, 바디로 이루어져 있다.

헤드^{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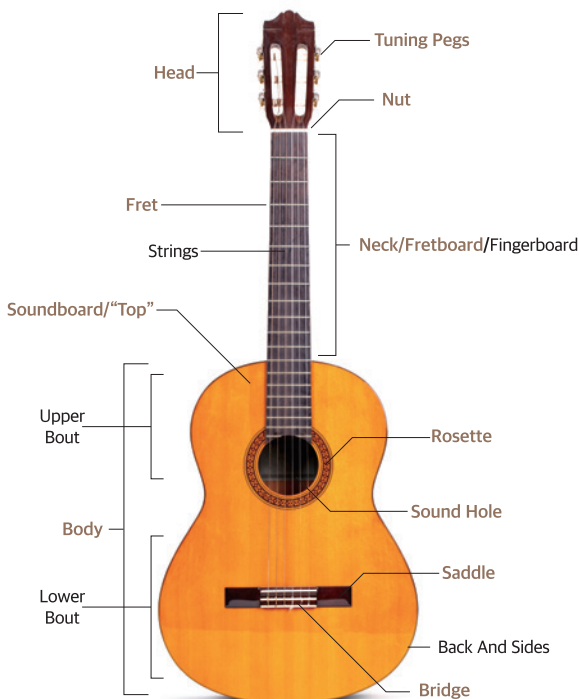
예전에는 나무팩을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고정력이 강한 튜닝머신을 사용한다. 너트가 헤드에 부착되어 있으며 홈이 파여 있어서 각 줄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렉트릭 기타의 경우에는 금속으로 제작된 것도 있어서 헤비메탈 음악처럼 강한 금속성의 사운드를 표현하는데 효과를 발휘한다.

넥^{Neck}

넥을 가로지른 금속 프렛이 19~20개 있으며 어쿠스틱 기타에 비해서 지판의 폭이 넓다. 현의 종류에는 나일론 줄과 카본 줄이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것은 나일론 줄이다. 이것은 음량은 작으나 썸머 연주 표현에 강하여 프로 음악가들이 선호한다. 반면에 카본 줄은 음량이 커서 손가락 힘이 없는 초보자와 취미연주자가 좋아하지만 썸머 연주 표현에는 약한 편이다. 연주 후에는 현의 장력으로 인한 넥의 휨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 줄을 조금 풀어주고 보관하는 것이 낫다.

바디^{Body}

8자형의 몸체로 옆판과 뒷판은 단단한 로즈우드로 만들며 앞판은 스푸르스, 시더, 마호가니, 메이플 등으로 제작하는데 나무의 재질과 원산지에 따라 음색 특성이 달라진다. 바이올린처럼 사운드 홀이 있는데 동그란 형태를 취하며 지름이 약 85mm이다. 사운드 홀 주변의 무늬는 로제타라고 부른다. 브리지는 현을 묶어서 고정시키고 높낮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쿠스틱이나 일렉트릭 기타에 비해서 현 교체법이 어려운 편이다. 현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지판과 현의 이격이 커서 연주하기 어렵고 낮을 경우에는 연주하기 쉬우나 버징(현과 프렛이 닿아서 진동하는 소음을 발생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브리지를 고정하고 장착하기 위한 부분이 새들이다.



기타의 구조 / yamaha.com

기타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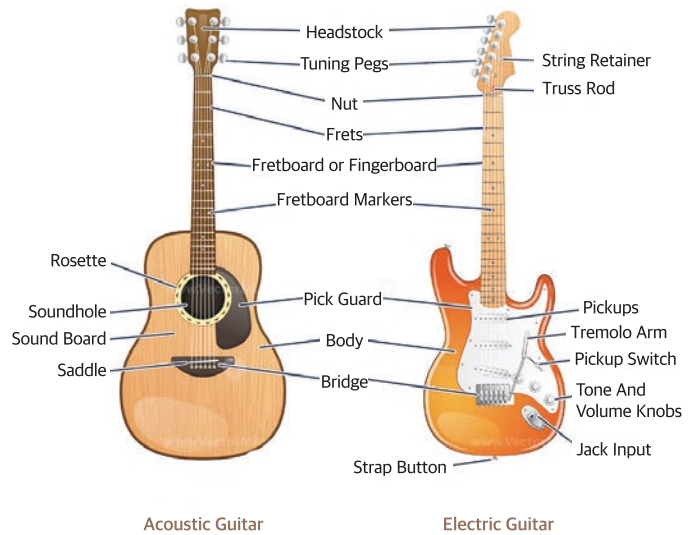
현재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타는 다음과 같다.

클래식^{Classic} 기타

클래식음악에 사용되며 탄생지인 스페인에 세계적인 악기 제작자가 많다. 음원을 수음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픽업을 장착한 모델도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악기가 많아 악기에 손상을 주면서 픽업을 장착하는 것은 꺼리는 편이다.

어쿠스틱^{Acoustic} 기타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 현을 사용하지만 어쿠스틱 기타는 금속 현을 사용하기에 소리가 훨씬 커졌으며 지판은 클래식 기타에 비해 좁아져서 상대적으로 운지가 쉬워졌다. 헤드와 바디, 피크가드 등이 개조되었고 포크음악이나 대중음악에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취미로 교양강좌를 받는 입문용에서 대중음악 연주자들까지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



어쿠스틱, 일렉트릭 기타 구조 / vectormine.com

어쿠스틱 기타에 픽업을 장착하여 라이브콘서트나 녹음에 사용하는데 픽업 종류에는 피에조 픽업, 마그네틱 픽업, 피에조+소형 마이크와 마그네틱+소형 마이크의 조합형 등이 있는데 피에조 픽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피에조 픽업은 새들 밑에 장착하기 때문에 언더 새들 픽업이라고 하는데 브리지의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서 앰프로 보내서 크게 키워진 소리를 얻을 수 있다. 고급형은 피에

조 픽업과 연결된 EQ(저음과 고음을 조절할 수 있음) 기능의 소형 박스를 측면 판에 장착해서 사용한다.



EQ 박스 형식의 피에조 픽업 / wish.com

일렉트릭^{Electric} 기타

일렉트릭 기타는 속이 비어 있는 클래식, 어쿠스틱 기타와는 달리 속이 꽉 찬 솔리드 바디에 스틸 현과 마그네틱 픽업이 장착되어 있고 앰프 혹은 음향장비에 연결하여 연주하는 악기이다. 아무런 연결 없이 이 악기만 연주해보면 아주 작은 소리가 나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앰프를 걸게 되면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게 된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울링에 강해서 SR^{Sound Reinforcement} 현장에서 대출력의 음량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펙트를 조합하여 우주적인 사운드에서 어쿠스틱 사운드까지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대중음악 전반에 사용되는데 락과 재즈에 더욱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특히 헤비메탈이란 장르는 일렉트릭 기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음악으로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 에디 밴 헤일런^{Eddie Van Hallen}, 임베이 맘스틴^{Yngwie Malmsteen} 등의 혁명적인 천재 기타리스트의 등장으로 고난도의 연주법과 복잡한 악기 세팅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외에도 가공할 연주력을 지닌 수많은 락, 블루스, 재즈 기타리스트가 있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며 그 대가들에게 크나큰 미안함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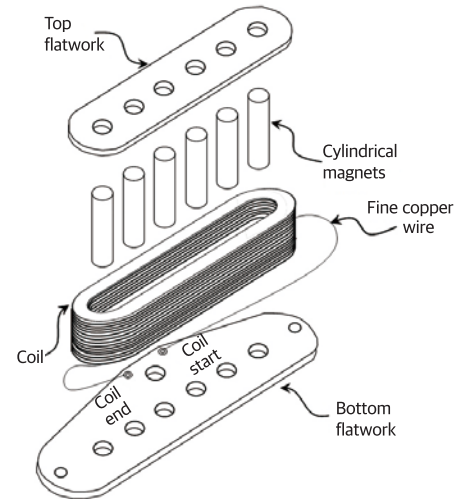
마그네틱 픽업은 영구자석 주변에 코일을 감은 형태로 발전기의 원리랑 비슷한데 코일을 감은 영구자석 바로 위에서 금속 현이 진동하게 되면 코일에서는 약한 전기가 발생한다. 이것을 앰프로 보내 크게 증폭하여 스피커로 대음량을 방출하게 되며, 종류로는 싱글코일 픽업, 험버커 픽업, 레일 픽업, 액티브 픽업으로 나눈다.

싱글^{Single} 코일 픽업

6개의 영구자석에 코일이 감긴 하나의 싱글 코일 픽업으로 소리가 명료하고 고음 특성이 좋아서 솔로 연주와 애드립에 강한 반면 험 노이즈가 발생하여 이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싱글 코일 픽업/dimarzio.com



싱글 코일 픽업 구조 / lawingmusicalproduct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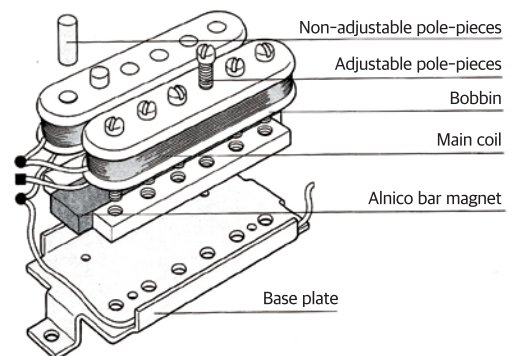
험버커^{Humbucker} 픽업

유명한 기타 제조사 깁슨에서 최초로 채용한 것으로 싱글코일 픽업을 두 개 연결함으로써 이름처럼 험 노

이즈를 없애고 보다 강한 전기적인 출력신호를 얻을 수 있다. 소리가 더 커진 반면 다소 둔하며 고역 특성은 약해진다. 하지만 중저음 특성은 좋아서 솔로 연주보다는 백킹연주에 훨씬 효과적이다.



험버커 픽업 / dimarzio.com



험버커 픽업 구조 / 48chicagoblues.com

레일Rail 픽업

상기의 픽업들은 기타 줄이 크게 진동하거나 과격한 초킹 연주(왼손가락으로 기타 줄을 밀어 올려서 음정을 높이는 기타연주 테크닉)를 하면 기타 줄이 개별 자석 위에서 벗어남으로써 소리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레일 픽업은 자석이 레일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변화를 오롯이 받아들이므로써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준다.



레일 픽업 / dimarzio.com

액티브Active 픽업

상기의 픽업들은 전원이 필요 없는 패시브 픽업들이다. 하지만 액티브 픽업은 9V 배터리 등의 전원을 사용하며 이것으로 작동하는 내장형 프리앰프로 신호를 증폭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없는 깨끗하고 강력한 신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장 비싼 픽업에 속한다.



액티브 픽업 / walmart.com

필자가 고등학교 다닐 때 헤비메탈 음악에 빠져서 라이센스 LP와 뺨판을 있는 대로 사 모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1년치 용돈을 아끼고 모아서 절치부심 일렉트릭 기타와 20W 앰프를 거금 30만 원에 사게 되었다. 택시까지 타고 집에 도착한 필자는 의기양양하게 사은품으로 받은 기타 케이블과 연결하여 앰프를 켜고 기타를 쳐보았다. 그런데 소리를 듣는 순간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뮤직비디오와 LP로 듣던 오지 오스본Ozzy Osbourne의 Bark at the moon에서 포효하는 일렉트릭 기타의 사운드를 기대했는데 너무나도 얇전한 통기타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가장 난 기타를 지하상가 악덕 주인이 순진한 고등학생에게 팔았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버스를 타고 가서 기세등등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아저씨! 이 기타 고장 났어요. 헤비메탈 기타 소리가 아니라 통기타 소리가 나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그 순간 돌아온 청천벽력같은 대답은 아직도 이날 만큼 필자의 인생에서 무척 부끄러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지하상가 주인아저씨 왈 “야 이 무식한 놈아~~ 오버 드라이브나 디스토션을 사야지. 이걸 들고 이까지 또 왔냐.

전화나 해보던가. 으이구. 국산하고 외산이 있는데 뭐 살래?~~~” 아저씨는 25만 원짜리 Boss 사의 디스토션을 걸어서 오지 오스본의 Bark at the moon을 연주하셨다. 결국 호구 고당은 또 다시 3개월 치 용돈을 모아서 5만 원에 국산 경남전자의 디스토션을 구매하게 되었다.

필자가 겪은 부끄러운 실화인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일렉트릭 기타를 꺾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요즘이야 인터넷과 유튜브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금방 조사해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전문가나 책을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쉽게 얻기 힘든 시대였다. 위에서 통기타 소리가 바로 클린톤이었으며 디스토션(기타 이펙트의 일종)을 걸어야 비로소 헤비메탈 기타 소리가 나게 됨을 후에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 일렉트릭 기타에는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이펙트 장비가 있다. 지금부터 이펙트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기타와 앰프의 중간에 이펙트를 설치하게 되는데 페달 보드Pedal Board 혹은 페달 트레인Pedal Train을 이용한 개별 이펙트(발로 밟으면서 조정하기 때문에 ‘스톰박스Stomp Box’ 혹은 일명 ‘꼭꼭이’라고 함)들의 조합이나 아날로그 멀티 이펙트 혹은 디지털 멀티 이펙트, 컴퓨터 플러그인 등이 있으며 요즘은 ‘캠퍼Kemper’라는 장비 하나면 끝일 정도로 어마무시한 장비가 출시되었다. 지금부터 이펙트의 종류를 알아보자.

드라이브 계열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헤비메탈 등으로 이름처럼 기타의 신호를 과도하게 왜곡시켜 거칠고 강력한 사운드 효과를 낸다. 그리고 음을 길게 지속시켜서 바이올린으로 길게 보잉하는 것 같은 솔로 연주를 가능하게 해준다.



헤비메탈 / boss.info

필터(엔벨로프와 주파수) 계열

와우는 음의 엔벨로프를 조정하여 음색을 변화시키거나 ‘와우와우’하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EQ는 고역, 중역, 저역대의 주파수를 조정하여 음색을 조정한다.



EQ / boss.info

다이내믹 계열

컴프레서, 볼륨 페달, 노이즈 게이트 등으로 일정 볼륨 유지, 음색변화, 볼륨 제어를 한다.



컴프레서 / boss.info

변조 계열

코러스, 페이저, 플렌저 등으로 위상을 변조시켜 음을 두텁게 혹은 울렁거리며 회절하는 듯한 효과를 줌, 플렌저는 제트기 효과를 주기도 한다.



코러스 / boss.info

시간 계열

공간감을 주는 이펙트로 디지털 딜레이는 같은 음을 여러 번 반복하는 기능으로 공간감을 준다. 리버브는 반사음의 집합체로써 소리가 울리게 들리는 효과인데 교회, 공연장, 동굴 등 특정 장소에서의 음향특성을 시뮬레이션한다.



디지털 딜레이 / boss.info

아날로그(조정하는 부분이 아날로그적임) 멀티이펙트

물리적으로 스톱프 박스를 여러 개 연결해 놓은 모양으로 각각의 이펙트를 아날로그 장비처럼 쉽게 세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음질에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BOSS 사의 ME-80 등이 있다.



아날로그 멀티이펙트 / cosmosmusic.com

디지털 멀티이펙트

아날로그 멀티이펙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LCD 창이 있어서 각각의 세부 파라미터에 대해 직관적인 조정을 할 수 없고 일일이 메뉴로 들어가서 조정해야 해서 초보자는 배워는데도 쉽지 않다. BOSS 사의 GT-1000 등이 있다.



디지털 멀티이펙트 / cosmosmusic.com

플러그인

컴퓨터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이펙트의 조합을 마우스 클릭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라이브에서는 컴퓨터가 다운됐을 때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녹음·믹싱용이나 연습용으로 사용한다.



플러그인 이펙터 / recordingsoftware.com

기타에 관련한 뒷이야기

세미놀 하드락 호텔 Seminole HARD ROCK Hotel

세계 최초 기타 모양의 호텔이 미국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서 2019년 10월에 오픈했다. 이름이 세미놀 하드락 호텔 앤드 카지노로 확장하는데 15억 달러(1조 7천억 원 상당)가 투자되었으며 온천, 회의 및 컨벤션, 라이브, 오락 공간을 구비하고 있다. 첨부된 동영상의 후반부에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건물 외벽의 화려한 라이트 쇼를 포함한다.



호텔 주간 전경 / sunny.org



호텔 야간 전경 / cigaraficionado.com

펜더^{Fender} VS 깁슨^{Gibson}

일렉트릭 기타 제조사의 양대 산맥으로 펜더사와 깁슨사가 있다. 일렉트릭 기타는 펜더에서 전 세계 최초로 1951년 솔리드바디(속이 꽉 차고 단단한 나무 몸체로 울림통이 없음)를 채용한 제품으로 출시되었다. 이듬해에 깁슨은 레스폴^{Les Paul}(자신이 만든 솔리드 기타를 펜더의 제품이 나오기 전에 깁슨사에 제의했지만 거절당함)의 기타 모델 레스폴을 펜더에 이어 출시하게 된다. 펜더의 주력 기타는 스트라토캐스터^{Stratocaster}인데 싱글코일 픽업을 채용하여 날카롭고 카랑카랑한 음색이 특징으로 솔로 연주에 최적으로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 에릭 클랩튼^{Eric Clapton}(Tears in heaven, Wonderful tonight으로 유명), 임베이 맘스틴^{Yngwie Malmsteen}(바로크 메틀의 창시자) 등이 사용하였다.



깁슨 레스폴(상), 펜더 스트라토캐스터(하) / imgur.com

반면에 깁슨의 주력 기타 레스폴은 싱글 코일 두 개를 연결한 험버커 픽업을 채용하여 중후하고 묵직한 음색이 특징

으로 백킹 연주에 탁월하며 지미 페이지^{Jimmy Page}(전설적인 락밴드 레드제플린^{Led Zeppelin}의 기타리스트), 랜디 로즈^{Randy Rhoads}(헤비메탈 그룹 오지 오스본^{Ozzy Osbourne}의 기타리스트), 슬래쉬^{Slash}(밴드 건즈 앤 로지즈^{Guns N' Roses}의 기타리스트) 등이 사용하였다.



펜더 : 시계방향으로 지미 헨드릭스, 임베이 맘스틴, 에릭 클랩튼 / guitarworld.com



깁슨 : 시계방향으로 지미 페이지, 슬래시, 랜디 로즈 / guitarworld.com

이 두 회사는 현재까지도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전 세계 기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 외의 기타 제조사들도 많은데 스티브 바이^{Steve Vai}(화려한 기타 테크닉으로 인간의 웃음, 울부짖음, 대화 등을 기타로 표현해냄)의 아이바네즈^{Ibanez} 기타도 특기할 만하다.



스티브 바이 / guitarworld.com

기타 마이킹, DI 연결과 앰프 마이킹

방송현장에서 야외 콘서트를 할 경우에 클래식 기타, 어쿠스틱 기타, 일렉트릭 기타의 수음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자.

클래식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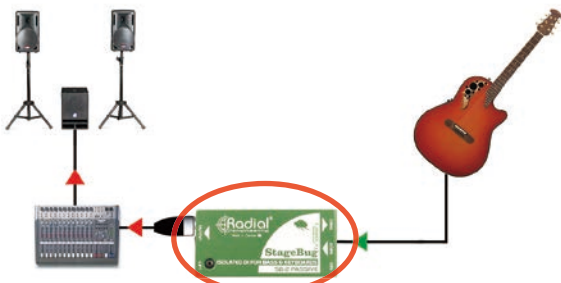
픽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카디오이드(단일 지향성) 패턴의 콘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수음한다. 간혹 픽업이 장착된 경우는 픽업을 사용하거나 혹은 픽업과 마이크를 섞어서 사용한다.



클래식 기타 마이킹 / 유튜브

어쿠스틱 기타

방송에서는 카메라 앵글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지저분해 보이는 마이크 스탠드를 이용한 마이킹보다 픽업에서 DI BOX_{Direct Injection Box}와 연결하여 오디오 믹서로 연결하여 수음한다.



DI BOX를 이용한 어쿠스틱 기타 수음

일렉트릭 기타

기타리스트가 설치한 페달 보드 혹은 이펙트의 출력을 오디오 믹서로 받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펙트 출력을 기타 앰프로 보내게 된다. 기타리스트는 기

타 앰프의 각종 볼륨이나 스위치를 조정하여 톤을 잡는 경우가 많기에 앰프의 스피커에 카디오이드 패턴의 다이내믹 마이크를 설치하여 수음한다. 마이크 위치는 스피커 유닛의 중간엔 둔탁한 소리가 나며 끝(edge)에 놓으면 얹고 힘이 없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 중간쯤에 위치하면 가장 강력하고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다.



일렉트릭 기타 앰프 마이킹 / 유튜브, audixusa.com, www.k-m.de

기타의 음원들

- 1) Paco de Lucia | Buleria por Solea | Antonia
- 2) 박규희 -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 3) John Williams - Concierto De Aranjuez
- 4) Acoustic Guitar Pickup Buyer's Guide
- 5) 일렉기타 픽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6) All guitar effects demonstration in one video
- 7) 세미놀 하드락 호텔
- 8) Jimi Hendrix - National Anthem U.S.A (Woodstock 1969)
- 9) Eric Clapton - Layla
- 10) Yngwie Malmsteen Icarus' Dream Suite Op4
- 11) Led Zeppelin - Black Dog 기타 : 지미 페이지
- 12) Ozzy Osbourne - Crazy Train 기타 : 랜디 로즈
- 13) Guns N' Roses - November Rain 기타 : 슬래쉬
- 14) David Lee Roth - Yankee Rose 기타 : 스티브 바이
- 15) Basic Recording Techniques : Acoustic Guitar
- 16) Basic Recording Techniques : Electric Guitar



기타 플레이 리스트

이것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현악기군에서 기타를 마치게 되었다. 다음에는 악기의 왕 '피아노'가 연재된다. 🎹